

民俗學的 側面

玄 容 駿*

I

이 글은 제주도 民俗分野의 연구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課題와 연구방향을 전망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는 이미 金榮敦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는 <解放後 濟州研究概觀：語文學・民俗分野>(<耽羅文化>創刊號, 1982)에서 口碑文學과 民俗分野의 연구동향과 성과를 낱낱이 분석했을 뿐 아니라, 그 研究論著目錄을 작성하여 업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金榮敦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이를 재분석 정리해 보고 앞날을 전망해 볼 길밖에 없다.

民俗學은 원래 그 學問의 성격상 人類學・社會學・宗教學・心理學・文學 등 여러 가지 人文・社會科學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民俗現象을 다룬 것일 지라도 民俗學的 研究가 아닌 것일 수 있다. 그 구분을 명확히 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民俗學的인 것이면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그리고, 家族・親族・마을의 생활 등 社會民俗은 중요한 民俗學分野임에 틀림없으나, 社會學分野에서 따로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를 論外로 삼는다. 다만 社會慣行이면서 宗教民俗的 의미를 지닌 通過儀禮 등은 여기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濟州大學校 教授

논술의 방법은 民俗學 각 분야의 조사된 자료와 이론연구들을 집계하여 현재의 연구단계를 가늠해 보고, 각 분야별로 연구의 동향과 성과를 점검한 후, 앞으로의 課題와 方向 등을 전망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II

먼저 제주도 민속의 분야별 資料調査와 理論研究가 얼마나 蓄積되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그것도 資料와 理論의 한계를 갖기가 어렵고, 또 그 質과 量의 문제가 있어 그것을 명확히 計數上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統計的인 數字로 나타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대략의 統計이지만 그 量을 數字로 계산해 보는 것은 각 분야별로 연구의 관심과 업적을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前記 論著目錄을 資料로 하여 分野別 資料와 理論의 論著 統計를 보이기로 한다.

이 표가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업적의 量이 많이 쌓인 것은 口碑傳承 分野이고 다음이 民間信仰分野다. 즉, 口碑傳承分野가 총 107편, 民間信仰分野가 총 46 편으로 前進한 分野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이 民俗藝術 23 편, 通過儀禮

濟州島 民俗研究論著 集計

→

區分	總類	社 會		衣 食 住			通 過 儀 禮				生 產 技 術		
		家族·親族·其他	總類	衣	食	住	總類	產俗	婚俗	喪祭	總類	農業	漁業
資 料	單行本	6	1			1	1						
	非單行本								2				
理 論	單行本	10	1	1									1
	非單行本	8	20	1	4	3	1	1	4	4	4		12
計		24	21	3	4	3	2	2	4	6	4		13

16 편, 生産技術 13 편, 衣食住 12 편, 歲時風俗 4 편의 순이다.

이를 더 細分하여 보면, 口碑傳承分野는 民謠 52 편, 說話·巫歌 41 편으로, 民謠, 說話·巫歌 등 口碑文學分野의 調査研究가 가장 前進했음을 알 수 있고, 民間信仰分野는 巫俗이 38 편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進展을 보여 준다. 民俗藝術分野는 民俗工藝가 13 편을 차지하여 이 分野에 기울어졌음을 보여 주며, 通過儀禮分野는 각 분야가 골고루인데, 어느 것도 특히 進전한 것이 없고, 生産技術分野는 漁業 특히 海女研究가 13 편으로 그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衣食住分野는 모두 그 業績이 미미하여 특별히 進전한 분야가 없다 하겠다. 결국 口碑傳承分野와 民間信仰分野가 가장 前進한 分野로서 어느 수준에 오른 것이 라 하게 된다.

III

이번엔 이들 업적들의 研究動向과 그 成果를 살펴 보기로 한다.

제주도의 民俗에 대한 關心은 《東國輿地勝覽》에서 이미 시작되어 《濟州風土錄》, 《南槎錄》, 《耽羅志》 등 朝鮮朝의 文獻에 보이니, 그것이 학문적으로

民間信仰				口碑傳承				歲時風俗	民俗藝術			
總類	巫俗	部落祭	新興宗教	總類	民謠	說話·巫歌	俗談·수수께끼·禁忌語		總類	音樂	民俗놀이	民俗工藝·民具
2	1			8	3	9	3	2		1	4	
								1				
1	3				4	1					1	
2	33	3	1	45	31	3	3	1	1	5	3	8
3	38	4	1	8	52	41	6	4	1	5	4	13

연구가 시작된 것은 日政時代라 할 수 있다. 1932년 京城帝國 大學의 秋葉隆이 내도하여 제주도의 巫俗을 조사 연구한 것이 그 본격적인 시작이요, 1935-7년에 泉靖一이 〈濟州島民族誌〉를 조사 기술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秋葉隆은 이 조사에서 西歸本郷堂본풀이 등 16편의 紋事巫歌를 採錄, 《朝鮮巫俗の研究》(1937)에 발표하는 한편, 〈濟州島の神話〉, 〈濟州島の蛇鬼〉 등 論文을 《朝鮮民俗誌》(1954)에 발표함으로써 제주도의 巫俗과 神話を 文化人類學的으로 해명하려 했다. 泉靖一은 당시 조사한 〈濟州島民族誌〉와 그 후의 논문을 합쳐 《濟州島》(1966)를 출간했는데 이는 본도 연구의 文化人類學的 著서로는 처음의 것이다.

제주도 민속의 본격적인 조사 연구는 1950년대 후반에 본도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겠는데, 그 대상은 民謠・說話・巫歌・巫俗 등 口碑傳承과 民間信仰에 기울어졌다. 그러나, 그 연구가 秋葉隆이나 泉靖一의 研究動向과 맥을 이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활동한 학자들이 國文學專攻者이었기 때문에 文學的 接近으로 착수된 것이다. 연구대상이 口碑文學에 기울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면 가장 진전한 口碑傳承分野부터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口碑傳承

口碑傳承分野에 가장 진전한 분야는 民謠다. 民謠의 조사 연구는 주로 秦聖麒・洪貞杓・金榮敦・林憲道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金文奎・崔鶴璇・申斗憲・左永助・姜龍祐・姜昌赫 등의 論考가 있다. 秦聖麒은 《濟州島民謠集》(1958)을 프린트판으로 맨먼저 내었고, 洪貞杓은 《濟州島民謠解說》(1963)을 내놓았다. 金榮敦은 이 무렵 민요의 체계적인 수집 정리와 연구를 줄기차게 진행하여 《濟州島民謠의 特色》(1964)을 내놓고, 《濟州島民謠研究(上)》(1965)을 내놓음으로써 제주도 민요 연구를 본격 수준에 올려 놓았다. 그 후 20년간 많은 논문과 現場論的 調查方法으로 새로운 資料를 조사 발표하는 한편, 최근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1978), 《濟州島民謠研究—女性勞動謠를 중심으로》(1983)를 내놓음으로써 濟州島 民謠研究의 중추적 작업을 해 놓았다.

지금까지의 민요연구의 動向을 종합해 보면, 文學的 側面에서 접근하여 그 歌詞分析을 통한 도민의 意識考究가 主課題였다. 제주도 민요가 대부분 노동요이고, 노동요는 노동이라는 現場的 機能과 밀접한 것이기에 平面的인 歌詞分析方法을 극복한 것이 金榮敦의 《濟州島民謠研究》(1983)이었다. 이도 역시 文學的 側面의 연구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새로운 方法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제주도 민요 연구는 앞으로 자료의 완벽한 조사와 아울러 勞動行爲의 律動, 唱法, 韻律, 機能, 歌詞 등의 構造的·立體的 解明의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 기대되며, 민요가 文學인 동시에 音樂이란 점에서 音樂的 研究와의 제휴가 기대되는 터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音樂的 研究가 거의 미개척의 상태다.

다음, 說話·巫歌分野를 보면, 이 분야는 주로 張壽根·秦聖麒·玄容駿·玄吉彦 등에 의해 개척되었고, 任哲宰, 任東權·李琪亨·李三悅·梁重海·蔚盛瓏·李杜鉉·高光敏·金和經 등의 論考가 있다.

張壽根은 〈濟州島女神考〉(1957)를 발표한 이래 巫歌와 巫儀를 조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韓國의 民間信仰—濟州島의 巫俗と巫歌》(1973)로 완성시켰다. 이 연구는 神話學的 方法에 의해 濟州島 巫俗과 神話의 地域的 특색을 구명하려 했다. 秦聖麒은 《南國의 傳說》(1959)를 낸 이래 《南國의 巫歌》(1960), 《南國의 民譚》(1976)등 귀중한 자료집을 내놓았고, 또한 여러 편의 논문이 있다. 玄容駿은 〈濟州島堂神話考〉(1962)를 발표한 이래, 《濟州島神話》(1976), 《濟州島傳說》(1976), 《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등 資料集을 내었고, 주로 神話의 연구논문을 써 왔다. 玄吉彦은 《제주도의 장수설화》(1981)에서 敘事巫歌와 傳說의 文學的 深層分析을 했다.

지금까지의 이 분야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첫째, 장르면에서 敘事巫歌 곧 神話에 집중되고 民譚은 資料나 研究面에서 거의 미개척이라는 점이다. 敘事巫歌인 본풀이의 자료는 秦聖麒·張壽根·玄容駿 등에 의해 굵직굵직한 單行本이 나와 있고, 그 연구논문도 무척 있는 것이 20여 편 헤아릴 수 있으며 傳說集으로는 秦聖麒·玄容駿의 것이 있고, 그 연구로 玄吉彦의 《제주도의 장수설화》등 손꼽을 것이 있다. 그런데, 民譚쪽은 秦聖麒의 《南國의 民譚》(1976)이 있을 뿐, 그 연구논문이 거의 없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보면 張壽根·玄容駿의 比較神話的 方法, 金和經의 構造

主義의 方法, 日政 때 秋葉隆의 社會人類學의 方法, 그리고 玄吉彥의 文學의 分析研究 등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로서는 어느 方法의 연구도 성공적인 수준에 오른 단계라 할 수는 없다. 제주도의 神話 곧 본풀이의 연구는 巫俗 자체의 연구와 병행해야 할 성격의 것이기에 巫俗 연구의 진척을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운명의 것이다. 여기에 연구의 어려움과 深度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든 지금까지 神話의 연구는 그 形成의 系統研究, 地域의 特色研究에 중점이 두어졌고, 傳說研究은 도민의 의식 분석에 치중되어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제주도의 설화·巫歌分野 연구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資料面에서 集大成作業이 이루어지고 그 分類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가장 資料集成이 잘 되어 있는 巫歌分野도 <조상본풀이>의 조사가 크게 모자란 형편이고, 傳說도 전모가 들어나기에는 아직 먼 느낌이며, 民謠은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玄容駿·金榮敦에 의해 이루어진 《韓國口碑文學大系 9-1: 北濟州郡篇》(1980), 《同 9-2: 濟州市篇》, 《同 9-3: 南濟州郡篇》(1983)과 같은 現場論的 調查作業이 각 면 단위 정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다.

둘째 연구면에서 現場論的 調查研究로 敍事巫歌를 비롯한 說話 전 분야의 실상과 生態를 치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比較神話學的, 構造主義的, 機能主義的, 文學的 分析研究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연구가 진전되어 있는 敍事巫歌를 보더라도 그 形成의 系統이나 시기, 本土의 것과의 構造의 차이와 의미, 祭儀와 生活에 있어서의 機能 및 生態, 古典敍事文學과의 影響 授受關係 등 어느 하나도 시원스럽게 밝혀진 것이 없다. 敍事巫歌가 이런 단계이므로 자료 수집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傳說이나 民謠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民謠·說話·巫歌를 제외한 俗談·수수께끼·禁忌談 등 口碑傳承의 연구는 더욱 뒤떨어진 셈이다. 이 분야는 秦聖麒의 《濟州島俗談》(1958), 《南國의 수수께끼》(1972), 《南國의 禁忌語研究》(1972) 등의 자료집과, 高在奐의 <濟州島俗談의 特性>(1981) 등 논문이 주된 것이다. 이 외로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1974)이나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國語教育科의 調查活動으로 조사 보고된 것들이 있으나 대단한 것은 못된다. 이 분야가 뒤떨어진 것은 民謠나

說話·巫歌 등에 비해 文學性이 적다는 데서 관심이 적은 때문이겠는데, 앞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분야라 생각한다.

2. 民間信仰

民間信仰分野는 口碑文學 다음으로 진전된 분야로서 거의 巫俗研究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巫俗이 巫歌를 포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巫歌研究가 巫俗研究를 병행해야 하는 데서 온 것이다.

또한 巫俗研究는 部落信仰·家庭信仰 등에 연결되므로 이 분야의 조사 연구에도 손이 미처가게 되었다.

民間信仰分野의 연구는 赤松智城·秋葉隆의 《朝鮮巫俗の研究》(1937), 秋葉隆의 《朝鮮民俗誌》(1954)에 이어 주로 張壽根·秦聖麒·玄容駿 등에 의해 진척되었고, 任哲宰·崔吉城·金泰坤·李康五·高光敏 등의 論考가 있다.

순수자료로서 巫俗誌的인 것에 玄容駿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이 있고, 巫歌集으로 秦聖麒의 《南國의 巫歌》(1972), 張壽根의 《韓國의 民間信仰: 資料篇》(1973)이 있으며 이 외로 서울大學校 濟州學友會의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 調査報告書》 등이 있다.

巫俗의 연구는 주로 職能者인 심방의 職能·成巫過程, 神靈, 儀禮의 祭次와 內容, 信仰實態 등의 현상을 파악, 이를 巫俗誌的으로 해명·기술하는 데 집중해 왔다. 秦聖麒는 資料集인 《南國의 巫歌》를 내는 한편 위와 같은 주제들을 기술해 왔으며, 張壽根은 이에서 나아가 神話學的 方法으로 제주도 巫俗에 접근, 儀禮와 神話의 關係를 分析하고 그 지역적 특성을 밝히려 했다. 《韓國의 民間信仰》의 여러 논문이 이런 경향이다. 玄容駿은 巫俗誌的 해명과 아울러 宗教民族學的 比較研究로 주변민족의 샤머니즘과 비교하여 심방의 샤먼적 본질과 동아시아 샤머니즘에 있어서의 위치를 해명하려 했다.

제주도의 巫俗研究는 상당히 진전되었음에는 틀림없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하겠다. 첫째, 部落祭인 당굿의 조사, 一族守護神인 〈조상〉神 및 그 儀禮의 조사 등 미흡한 자료들을 集成하여 巫俗誌를 완성해 놓아야 하겠고, 둘째, 심방의 職能자적 성격이나 神靈 및 儀禮의 樣態를 세밀히 조사 검토하고 本土 여러 지역의 巫俗과 比較하여 그 形成의 歷史와 地域性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셋째로 巫俗이 社會·文化構造 속에 차지하는 機能面이 추구되어야 하고, 넷째로 다른 여러 宗教와의 相關關係도 밝혀져야 하며, 民族學的인 比較研究도 深化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豫兆·禁忌·占卜·呪術 등 巫俗分野가 아닌 俗信分野는 전연 미개척 상태인데, 이 분야에도 관심이 돌려져야 할 것이다.

3. 民俗藝術

論著의 수로 세번째 차지하는 분야는 民俗藝術이다. 이 영역엔 音樂·舞踊·演劇·놀이·工藝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 중 가장 활발한 것은 民俗工藝다. 그 중에서 관심이 많이 쏠린 것은 石像 '우석목'과 冠帽工藝·제주 케 등이었다. 金榮敦의 《濟州島의 民間工藝》(1967) 외 여러 편의 논문과 梁義淑·文基善·玄容駿 등의 論考가 있다. 그러면서도 이 분야는 아직 資料調査 報告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音樂分野는 羅運榮의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I)-音樂構造를 중심으로〉(1972) 외 宋正彥·櫻井哲男 등의 論考가 몇 편 있으나, 아직 民謠나 巫歌의 採譜도 거의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불원 韓國精神文化研究所에서 《韓國民俗大觀：濟州道篇》이 나온다 하니 기대가 크다.

舞踊分野는 鄭炳浩의 《公演藝術叢書Ⅶ：춤사위》(1981)에 제주도 巫舞가 잠깐 소개되어 있을 뿐, 舞譜 채록도 하나 없는 실정이다.

民間演劇·民俗놀이 분야에는 秦聖麒의 《남국의 민속놀이》(1975) 외 金榮敦·玄容駿 등의 論考가 있으나 아직 저조하다.

4. 通過儀禮

通過儀禮分野의 업적은 金榮敦의 《濟州島民의 通過儀禮》(1966), 高富子の 〈濟州島産俗〉(1976-77), 〈濟州島의 婚俗〉(1978), 崔在錫의 〈濟州島의 婚姻儀禮와 社會的 意義〉(1977), 〈濟州島의 死後婚〉(1978), 玄容駿의 〈濟州島의 喪祭〉(1978) 등이 주된 것이다. 崔在錫은 社會學的 關心에 역점을 두고, 나머지는 民俗學的 측면에서 그 信仰의 의의를 중시했다. 社會的·信仰의 측면

면에서 앞으로 많은 작업이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다.

5. 生産技術

生産技術 및 慣行에 대한 연구는 거의 海女에 집중되었다.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1973)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 玄容駿·秦聖麒·김광언·金榮敦 등이 農業·漁業·狩獵·採集·民俗工藝 등을 조사한 것이 있으나 단편적인 것이고, 海女 이외의 불 만한 연구는 아직 없다.

海女를 다룬 것으로는 康大元の 《海女研究》(1970)를 비롯하여 洪性穆·高翔龍·洪喜久·閔京姪·洪明杓 등의 論考가 보이나 거의 海女の 權益問題, 入漁慣行權 등을 다룬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民俗學的 研究는 드물다. 이에 비해 金榮敦은 〈海女研究序說〉(1970), 〈海女の 漁撈方法〉(1970), 〈濟州島 海女の 出稼〉(1971), 〈海女와 海女노래〉(1977) 등을 통해 民俗學的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외로 稻田菊太郎·조혜정 등의 人類學的 접근도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해녀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어서 이의 연구는 제주 學界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수준의 단계는 아니라 본다. 제주 海女の 歷史·生活慣行·信仰·社會構造에 있어서의 位置·機能, 그리고 그 文學 등 허다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分野라 하겠다.

6. 衣 食 住

衣生活의 주요 논저에 高富子の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1971), 〈濟州島の 服飾〉(1975), 〈濟州島通過儀禮服의 研究〉(1980) 등이 있고, 食生活 分野에는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에 洪良子·黃慧性の 報告가 있고, 張愛深의 〈濟州道 巫俗祭 祭物의 民俗學的 研究〉(1976) 등이 있다. 住生活分野에는 위의 두 가지 보고서에 金正基·金鴻植의 치밀한 보고 있어 注目되는 것이다.

衣食住分野는 民俗學的의 중요한 분야이나, 70년대초에 이르러서 활발해지기 시작해서 아직 연구사가 짧다. 衣生活은 高富子에 의해 民俗學的인 깊이를 찾

아들고 있으나, 食生活와 住生活分野는 民俗學的 접근이 알다. 金鴻植의 前記報告는 건축학적 측면에서 力作인데, 이에 맞설 住生活民俗의 연구는 아직 없다. 民俗誌的 記述부터 우선 기다려진다.

7. 歲時風俗

秦聖麒의 《南國의 歲時風俗》(1969), 洪貞杓의 〈耽羅歲時〉(1976), 李杜鉉의 〈濟州島民俗調査: 古城里와 水山里的 歲時風俗과 部落祭를 中心으로〉(1980) 등이 주된 것이다.

歲時風俗은 濟州島의 基層文化를 해명하는 데 주요한 분야인데, 그 연구가 부진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東國輿地勝覽이나 東國歲時記 등의 濟州風俗條에 수록된 歲時風俗마저도 오늘날의 그것과 對比시켜 선명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花盤’ ‘然燈’ ‘躍馬戲’ 등 몇 가지에 대한 玄容駿의 論考가 있을 뿐이다. 지금 殘存해 있는 것을 地域別로 낱낱이 조사하고 文獻記錄, 本土, 주변민족의 그것들과 비교 연구하는 작업들이 기대된다.

IV

이상 말해 온 바를 종합하여 앞날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이제까지의 제주민속 연구의 흐름에서 주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 ① 1950년대 후반에 와서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 ② 그 연구의 主役들은 國文學 專攻者들이요, 주로 도내 학자들이다.
- ③ 民謠·巫歌·說話 등 口碑文學分野가 가장 전진했고, 이어서 이와 관련된 民間信仰分野가 활발한 편이다.
- ④ 그 연구들은 文學的·神話學的·宗教民俗學的 측면의 연구가 주된 동향을 이루어 왔다.
- ⑤ 제주도의 민속연구는 타지역에 비해 훨씬 활발하고 전진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판이지만, 위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의 분야는 아직 저조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약하고 볼 때 위의 각 항은 그 학술적 배경면과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1950년대 후반에 와서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시작된 것은 濟州大學이 1952년에 개교되었고, 國文學科 졸업생들이 이 무렵에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그 주요인이 있다. 그 연구 주역들이 국문학 전공자라는 점이나, 그 연구 영역이 口碑文學과 이에 관련된 분야라는 점이나, 그 연구방법이 文學的인 동향으로 흐른 점이나, 다 여기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제주 민속연구의 배경과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앞으로의 전망도 헤아려 보기에 어렵지 않다.

첫째, 학술적 배경을 볼 때, 濟州大學校에 國語國文學科·國語教育科·社會學科·史學科·音樂教育科 등 민속연구와 관련될 수 있는 학과가 보강되었고, 耽羅文化研究所가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서울大學校 人類學科를 중심으로 한 濟州島研究會가 창립되어 활발히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本道內와 서울에 研究基盤이 확충되고 있고, 쌍방이 서로 제휴 연구해 나갈 때 앞으로 제주도 민속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금까지의 연구 업적이나 동향, 그리고 濟州大의 관련 학과 등으로 볼 때 앞으로도 口碑文學分野와 이와 관련된 民間信仰分野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深化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口碑文學分野는 民謠·說話·巫歌 등을 주로 文學的 側面에서 천착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民間信仰分野는 역시 巫俗에 力點이 두어지되 굿의 演劇의 측면의 해명 등에 관심이 기울어질 것이라 보인다.

셋째, 衣食住, 生産技術 및 慣行·通過儀禮·歲時風俗·民俗藝術 등의 분야는 民俗學의 주요한 분야임에도 아직 저조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 도내 학자들에 의해 단시일에 비약할 전망은 없는 듯하다. 이들 분야와 관련 있는 濟州大의 社會學科·史學科·音樂教育科 등에서 社會民俗學的·歷史民俗學的·音樂民俗學的 研究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싶은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제주민속의 조사 연구는 상당히 전진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그것들은 民俗文化現象을 분야별로 각각 다른 視角과 方法으로 다룬 경향이 많

고, 엄밀한 의미의 民俗學的方法으로 그 歷史的 解明이나 機能・構造的 解明을 종합적으로 시도한 업적들은 많지가 못하다. 民俗文化現象의 어느 분야를 문학, 사회학, 심리학, 종교학, 역사학, 음악학 등 여러 개별과학의 측면과 방법으로 각각 일부씩 다루는 것만으로는 民俗學은 될 수 없다. 역시 본격적인 民俗學的 研究가 이룩되려면 民俗學科 또는 文化人類學科에서 훈련된 학자가 제주 연구에 전념하는 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